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차 관련 단체들 '분주'

“禪茶의 멋과 맛 세계에 알린다”

“Hello, 안녕하세요. 껌다래(喫茶), 차 드 시러 오세요”

내년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열리는 2002년 월드컵을 맞아 불교의 선차(禪茶)를 널리 알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이 추진중인 ‘템플 스테이(Temple Stay, 사찰 숙박)’ 즉,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찰을 숙소로 제공하고 불교 문화를 체험토록 하는 이 사업의 주 내용을 선차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통문화포럼(공동집행위원장 성광·김의장과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장은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템플스테이 추진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템플스테이 사업에 자원봉사자로서 적극 참여해 한국선과 선차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 서겠다’고 결의했다.

전통문화포럼 집행위원장 성광스님(화계사 주지)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월드컵 기간중 우리가 가장 자랑할만한 문화는 임제선의 정통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선이다”며 “월드컵을 계기로 다선일미(茶禪一味)의 한국불교 선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란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정무형 한림대 교수도 템플스테이 제도가 정착된 일본의 차와 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설명하며, 다도체험 등 고급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인철 전통문화포럼 집행위원장 대행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선차를 알리는 다도관 설치, 인터넷 홍보 사이트 개설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 통해 한국 다도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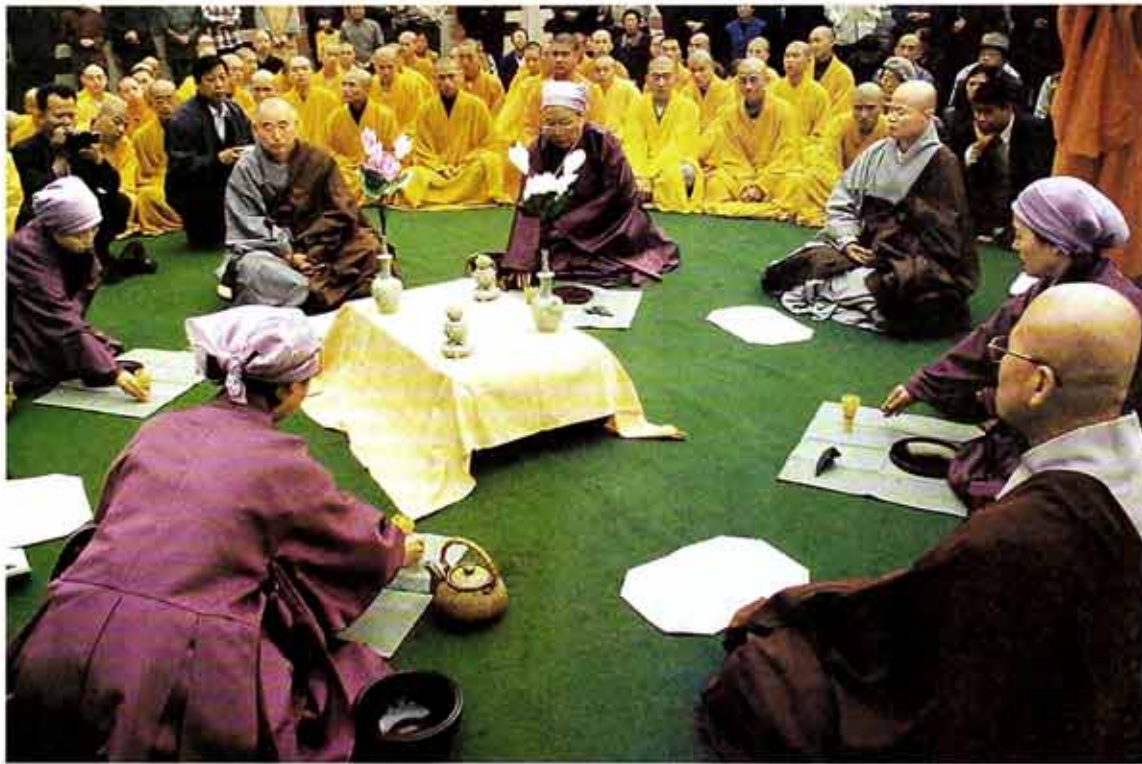
이처럼 명원문화재단과 화계사가 전통문화포럼을 구성, 한국 선차의 세계화를 선언한 것을 비롯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선차를 알리기 위해 움직이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

반대로 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은 지난 10월 2일 강화 선원사에서 ‘2002년 월드컵 성공 기원 효당스님 한일 문도 추모 차례’를 봉행한 것을 계기로, 차도와 국악이 어우러진 선차 시연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효당본가의 차도를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대전 보현문화회관(관장 오상현)도 11월 23일 보현문화회관 대법당에서 일본 정토종 본원사과 정국사주지 타치바나 카쿠오와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다도 문화 교류전을 개최했다. 이번 문화 교류는 양국 불교 및 다도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선차문화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템플스테이 사업을 주관할 예정인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외국인 우리문화 체험프로그램’이란 보고서를 통해 다도 실수를 전통예복 참석, 발우공양, 참선, 전통음식, 선무도 및 법배 등과 함께 불교 문화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채택했다.

외국인들에게 다도 시연을 통한 시음의 기회를 마련하고, 쌍계사 등 차밭이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1200여년전 조주 선사의 ‘껌다래(喫茶, 차나 한잔 드시오)’ 화두가 한국 불교의 차인들에 의해 세계인들에게 회자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0월19일 중국 허북성 백림선사에서 조주선사비 제막식을 가진 후, 명원문화재단(명원문화재단)을 시연하는 명원문화재단 회원들.

차의 재배와 가공, 완성까지의 과정을 체험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선차에 대한 강좌와 자료실명을 통해 선차일미(茶禪一味)의 사상을 가르쳐 ‘보여주기’ 식의 상품화된 일본 다도와는 달리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한국 선차의 멋과 맛을 알릴 계획이다.

우리의 선차문화는 한국 정신문화의 총화로서 세계인들의 이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서울시의 ‘200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을 방문한 미주, 유럽의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꼽힌 바 있다.

(사)차문화연구원 이사장인 여연스님(임지암 주지)은 “손수 생물을 길러 차를 담겨 마신 후 지니는 마음가짐과 추구하는 바가 참선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사상이기며, 선차를 따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불, 발우공양, 참선 등과 함께 자연스럽게 선차를 체험토록 한다면 한국불교의 선을 이해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30일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장 정몽준씨의 부인인 김영명씨를 비롯, 유럽 미국 등의 집행위원 부인 30여명이 통도사를 방문, 통도사상도박물관 등을 관람했다. 이어 이들 일행은 포교국 선차선다회의 다도시연 등을 통해 한국의 멋과 맛을 체험했다.

전통문화포럼 집행위원장 김의정씨 “선차는 한국 문화상품”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된 전통문화포럼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의정(60) 사진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한국불교의 선맥과 초의선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차와 선은 하나라는 선차일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전통문화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며 “우리 민족의 얼과 드넓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정수선 선차문화는 세계대방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한국 차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국 선차문화의 우수성과 특색을 밝혀 본래의 모습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학문적 정립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되는 삼정각 전통문화관내에 명원문화회관도 개원한 김 이사장은 이미 해오고 있는 선차강연과 함께 참선수행과 발우공양을 교육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시민선방도 개설할 계획이다.



◀차 한잔 덜어마시는 일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하며, 자연과 인간의 진리를 저절로 터득하게 하는 참선의 한 방법이다.

쌍계사 다원...대둔사 동다실... 산사의 찾집들 그윽한茶香

산사의 찾집은 한국 불교의 참맛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곳이다.

하동 쌍계사 쌍계다원, 해남 대둔사 동다실, 강진 백련사 선다원, 장성 백양사 다원, 승주 선암사 선다당, 김천 직지사 산중다원, 양산 통도사 선다원, 남양주 봉영사 불연다원, 순천 송광사 다송원, 남양주 주종사 삼정원, 인제 백담사 농암실 등 10여 곳이 넘는 사찰에는 시민들을 위한 찾집이 운영되고 있다.

차의 사해지로 널리 알려진 하동 쌍계사는 스님들이 손수 만든 아생녹차로 유명하다. 이른봄에 아생 차나무에서 잎을 채취해 사찰 특유의 제다방법으로 만든 녹차는 유난히 향기롭다.

다성(茶童)으로 일컬어지는 초의선사의 은기가 느껴지는 대둔사 동다실은 유난히 많은 다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동다실에서 먼저 따뜻한 반아차로 심신을 정화시켜 보는 것도 겨울 산사의 정취를 만끽하는 좋은 방법이다. 20여분 산길을 올라 일지암에 이르면 한국 선차의 중흥조인 초의선사의 법당도 느낄 수 있다.

백양사 다원은 대나무가 은근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아생 차밭에서 아침이슬이 채 마르기 전에 채취한 차잎으로 만든 죽로차와 백양사 술암차로 유명하다. 약효뿐만 아니라 향이 날랄라 특이하기 때문이다. 강진의 만덕산 백련사 선다원은 멀리 남해의 물빛이 아스라히 안개처럼 보이고 동백나무 숲이 굽어 보이는 풍경과 그윽한 다향이 자랑이다. 직지사 산중다원은 황악산으로 오르는 길목에 위치해 개울물 소리가 울려 퍼져 들려오고 청바위로 보이는 앞산의 나뭇들이 그림처럼 보인다. 주종사 삼정원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서울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보정스님의 선차사상을 기리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문을 연 송광사 다송원은 1백여평의 규모로 송광사 입구에 위치, 일반인에게 다도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m@buddhaya.com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표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약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회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명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쉽게 경계가 됩니다. 즉, 인체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종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정강 대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기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